

大韓電子工學會 편

産學協同을 促進시킬터

研究機關과 有機的 結合으로



申 龍 徹 會長

工業의 育成은 研究機關과 企業體의 緊密한 協調없이 期待하기 어렵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고 工學會의 使命은 大學이나 研究機關의 研究活動을 有機的으로 結合시키고 이들과 企業體사이의 産學協同을 促進시키는데 있다고 生覺된다.

電子工學은 學問의 發展速度가 다른 어느 學問分野 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研究의 背景없이 電子工業을 繼續 育成해 나가는것은 不可能하다 事實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電子企業體는 大體로 外國과의 技術協力에 의하여 發展하여 왔기 때문에 研究를 疎忽히 하여 왔지만 現在는 그 限界를 느끼게 되어 研究開發에 대한 扱次없이 앞으로 發展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事實을 알게 된 것은 晩時之嘆이 있으나 千萬多行한 일이라 하겠다.

大韓電子工學會가 創立된것이 1946년이지만 本格的인 活動에 들어간것은 1960年代 以後라고 生覺된다.

創立當時의 會長은 電氣通信界의 元老이신 李 載坤先生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曹應天先生, 吳 鉉禕先生이 會長을 歷任하였다. 學會誌의 創刊號는 1963年 10日 發刊되었으며 其間 會誌의 總發刊數는 50卷이며, 昨年에는 會誌6卷 雜誌2卷을 發刊 하였다.

現在 會員數는 1500餘名에 達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電子工學의 研究 또는 電子工業에서 中

樞的인 일꾼들이라 하겠다.

學會豫算은 70年度에는 3,076,624원이던 것이 75年度에는 9,830,727원으로 無慮 3倍로 增加하였다.

昨年에는 學術세미나 7回 招請講演會 3회를 施行하였으며 科學技術用語制定이나 K.S制 定等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하였다.

우리 學會는 釜山과 大邱에 支部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支部活動도 매우 活潑하게 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學會는 亞細亞電子聯盟(A. E. U)에 우리나라를 代表하여 正會員으로 加入되고 있으며 每年 501弗의 會費도 納付하고 있으며 2年마다 海外에서 開催되는 A. E. U總會에 數名의 代表를 派遣하여 우리나라의 電子工業 技術을 紹介하고 會員國의 電子工業 및 技術發展 動向을 調查하여 우리나라 工業育成的 重要한 資料로 삼고 있다.

大韓電子工學會는 또 先進諸國의 學會에 比할 때 매우 遼遠한 感이 있으나 國內의 다른 工學會에 比하여서는 조금도 遜色이 없다고 自負하고 있으며 또 나날이 發展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는 오로지 會員諸位의 協助과 本學會의 特別會員인 電子·通信業體 및 産學協同財團의 物心兩面의 聲援에 基因하는 것으로 紙面을 통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